

## 2018년 제1차 시청자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자: 2018.07.27.(금) 심의자료실

### □ 개 요

- 일 시 : 2018.07.27.(금) 16:00
- 장 소 : 국악방송 본사 10층 대회의실
- 출석 위원 : 유명대(위원장), 박현순(부위원장), 김휘, 변재수, 이상용, 김남순, 김신아, 이정화
- 참석 국악방송 임직원
  - 사장, 본부장, 심의자료실장, 경영기획부장, 광주국악방송국장, 방송제작부장, 문화영상콘텐츠부장, 심의자료실 부원 이성아 배석
- 주요 내용
  - 국악방송 대표 및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인사
  - 2017년 제2차 시청자위원회 후속조치 결과보고
  - 방송 제작 관련 의견 및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제안 (시청자위원)

### □ 결 과

- 주요 안건 보고
  - 2017년 제2차 시청자위원회 후속조치 결과보고 (방송제작부장)
  -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제안 (경영기획부장)
- 방송 제작 관련 의견 및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제안 (시청자위원)
- 다음 위원회는 10월 개편 시기에 맞추어 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임

## □ 방송 제작 관련 의견 및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제안 내용

구분	성명	제시 의견
위원장	유영대	<p>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지금 상당히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함.</p> <p>시간 띠에 따라 방송이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진지하고 정통성 있는 것과 보다 가벼운 프로그램의 교차가 오히려 환기되는 것 같음. 이러한 시간 띠의 운영 편성을 잘 보장하여 구성하면 좋을 것임.</p> <p>최근에 아나운서 등과 같은 전문 진행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악적 전문성을 지닌 진행자도 요구됨.</p> <p>대중화는 지금 당장 달성하기에는 어려움. 운전자는 라디오를 많이 듣지만 이제 다양한 플랫폼의 시대가 올 것임. 그 안에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숙제임. 어떤 든 보이는 방식으로는 많이 집중을 해야 하겠음.</p> <p>프로그램의 정체성,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좋겠음. 프로그램 내의 청취 타겟, 난이도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겠음.</p>
부위원장	박현순	<p>국악방송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에 비하여 화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10월 개편에서는 화제성 있는 인물을 진행자로 섭외하는 등의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함.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진행자 물색이 필요함. 의외의 인물 등을 섭외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음.</p> <p>멘트 보다는 음악이 많이 나오는 채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p> <p>국악에 대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최고다, 명인이다’ 등의 일률적인 표현보다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함. 연주자 중심이 아닌 작품 중심의 구성이 요구됨.</p> <p>국악 뮤직비디오 기획은 상당히 좋음. 문화-예술-미디어가 융합된 콘텐츠들이 매우 신선함. 해외까지도 국악의 저변 확대,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겠음.</p> <p>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인데 전통 분야에서도 이것을 주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하겠음.</p> <p>공공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전통악기 등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음. 주변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겠음. 아카이빙 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교류하고 모아서 활용하여야 하겠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 화두를 국악방송이 선점하면 좋겠음.</p>
위원	김휘	<p>TV채널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어서 라디오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임.</p> <p>국악방송은 음악 전문채널임. 전문 진행자가 매우 중요함. TV의 경우는 공익채널로 가야 할 것인데 국악과 어떤 문화예술 장르를 넣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음악과 관련하여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음악 위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음.</p> <p>공익채널TV 준비에 힘을 쓰고 지역국에도 무게를 잘 실어야 하겠음. 광주의 경우 국악당을 설립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어떻게 일을 펼칠 수 있을 지 국악방송의 역할이 중요함. 또 향음 서비스의 지속 및 전국적 확대가 있어야 하겠음.</p> <p>공익광고 제작은 공익성뿐만 아니라 인지도 상승에도 기여할 것임.</p>
위원	김남순	<p>한영애의 문화시대를 들어본바 국악적인 색을 많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런 아티스트가 국악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짐.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흡인할 수 있을 것 같음. 국악 외 분야의 게스트가 등장하거나 전혀 국악 같지 않은 음악을 감상하면서도 국악방송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멘트 등을 녹여내는 것이 채널 고정을 이끌어낼 것임.</p> <p>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소재 선정, 제작이 요구됨. 가공된 음악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사계절의 소리를 담아내는 등의 시의성 있고 일반인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편성이 있으면 좋겠음. 지역의 젊은 국악인들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 청취자들이 국악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음. 국악을 좋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음. 젊은이들과 더불어 외국인들을 흡인할 수 있는 인터뷰, 강습 체험 등의 코너를 운영하면 좋겠음.</p>

위원	김신아	<p>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자세히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함. 전통공연예술재단 기획자 양성 사업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함.</p> <p>국악을 표현하는 적절한 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함. 대중이나 해외에 일반적인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국악계 내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매체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p>
위원	변재수	<p>국악방송의 정체성과 중심을 잡아야 함. 국악 외의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국악 관련된 콘텐츠 중심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p>
위원	이정화	<p>콘텐츠 플랫폼이 변화하는 상황을 공감하고 있음. 개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공중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음.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청취자들은 시청하고 싶어 함.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국악 중심, 음악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함.</p> <p>‘세계음악여행’은 국악방송으로 청취자를 흡인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축소 편성된 부분이 아쉬움.</p> <p>코너에서 전화연결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게스트나 리포터 등이 출연하는 것이 좋겠음.</p>
위원	이상용	<p>국악방송 자체 시스템 내에서 직원을 재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국악방송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동호회/자율연구회 형태, 직종 초월한 스터디 모임 등이 가능할 것임.</p> <p>국악이라는 원 소스(One Source)를 다룸에 있어서 국악방송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함.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것이 아니라 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다뤄야 하겠음. 연령대별 콘텐츠 소통 채널이 다른 것과 같이 청취층에 따른 콘텐츠 소통창이 필요하겠음. 요즘 젊은이들은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으로 소통함. 공중파 매체는 플랫폼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함.</p> <p>방송 편성표 상에서의 타겟 청취층, 문화의 관련성들과 관련하여 제작진들이 내용을 풀어줄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음악적 난이도나 장르별 관심사 등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1인 방송 최대의 걸림돌은 저작권 문제인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함.</p> <p>국악뮤직비디오 등과 같이 예술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공공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보다 목적성이 뚜렷한 콘텐츠가 되도록 소비까지 고려하면 좋겠음.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하겠음. 타 매체 제공 시 심의를 거치는 부분 또한 고려하여야 함.</p>

□ 시청자위원회 사진자료

